

오순절 후 일곱 번째 주일 예배

THE WORSHIP SERVICE OF 7TH SUNDAY AFTER PENTECOST

주후 2020년 7월 19일 오전 10시

인도: 김일선 목사

*입례 찬양 Opening Hymn	“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”	다같이
*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		인도자
*찬 송 Hymn	345장 “주 하나님 늘 믿는 자”	인도자
*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	29번 시편 (Psalm) 130편	다같이
*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		다같이
*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		인도자
*송 영 Gloria Patri	555장 “세번 아멘”	다같이
*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		다같이

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		이성우 장로
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------

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	히브리서(Hebrews) 10:38-11:3	임소영 집사
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

설 교 Sermon	“ 믿음은 확신이며 증거입니다 ” (Faith Is Assurance and Conviction)	김일선 목사
------------	---	--------

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		다같이
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---

봉 헌 Offerings	(특송: 윤희준 집사, 반주: 고혜정 집사)	다같이
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

*송 영 Doxology	353장 “내 주 예수 주신 은혜” (새317) 1절	다같이
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

*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		다같이
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---

교회 소식 Announcements		인도자
---------------------	--	-----

*찬 송 Hymn	340장 “구주 예수 의지함아” (새 542)	다같이
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

*축 도 Benediction		김일선 목사
------------------	--	--------

*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. Please stand if you are able.

고백의 기도

(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,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.)

다같이: **거룩하신 하나님,**

성경은 우리에게, “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,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”

고 권면했지만,

우리는 여전히 세상적 가치와 만족을 좇았고,

신앙과 삶이 하나되지도 못했습니다.

우리의 그릇된 신앙과 교만하고 거짓된 삶을

이 시간,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, 회개하오니,

“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,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.”

이제는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죄악에서 돌이켜,

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,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며,

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자가 아닌,

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좇으며 살게 하옵소서.

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

(*엡 4:22-23)

오늘의 성경/말씀 TODAY'S SCRIPTURE

“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,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.” (한글개역 히11:1-2)

“Now faith is the assurance of things hoped for, the conviction of things not seen. For by it the men of old gained approval.” (NASV Hebrews 11:1-2)

매/일/성/경/읽/기 DAILY BIBLE READINGS

날짜	7/19 (주일)	7/20 (월)	7/21 (화)	7/22 (수)	7/23 (목)	7/24 (금)	7/25 (토)
	삿3	삿4	삿5	삿6	삿7	삿8	삿9
본문	행7	행8	행9	행10	행11	행12	행13
	렘16	렘17	렘18	렘19	렘20	렘21	렘22
	막2	막3	막4	막5	막6	막7	막8

수/요/성/경/공/부 토/요/새/벽/기/도/회

수요 성경공부 (7/22수 오후7:30)	“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” (민 20:1-13)
토요 새벽기도회 (7/25토 오전6:30)	“복 있는 사람은” (시 1:1-6)

지난 주일(7/12) 말씀

“더 낮고 영구한 소유”(히 10:26-37)

오늘 본문은 심판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,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‘더 낮고 영구한(영원한) 소유’가 있다는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. 즉,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고난은 존재하지만, (그림에도 불구하고)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(우리에게) ‘더 낮고 영구한 소유’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. 그렇다면 더 낮고 영구한 소유(기업을) 위해,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(구체적으로) 무엇이 있겠습니까?

더 낮고 영구한 소유(기업을) 위해, 1)첫째, 우리에게는 생각하고 기억하는 (올바른) 지식이 요구되며 (히10:29, 32), 2)둘째는, 우리에게는 믿음의 담대함이 요구되며 (히10:35), (마지막) 3)셋째는, 우리에게 소망의 인내가 요구됩니다 (히10:36).

왜냐하면, 1) (바르게) 보고, (바르게) 생각하고, (바르게) 판단하는 신앙이 (바로) 우리 기독교 신앙이며, 2) 믿음에서 비롯된 담대함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게 하며, 3) 여러 시험과 어려움 중에도,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이유는 참고 인내하는 것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,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.

그러므로,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며, 1) 바르게 보고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판단하는 (올바른) 지식과, 2) 믿음의 담대함과, 3)소망의 인내로,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

설/교/ 메/모